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번호 |  |  |  |  | 3 |  |  | 제 ( ) 선택 |
|----|--|------|--|--|--|--|---|--|--|----------|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인간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가): 도덕 언어 분석을 윤리학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③ (나):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 ④ (나):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⑤ (가), (나): 도덕적 관습을 가치와 무관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외부 세계에서의 싸움에서 지쳤을 때 돌아와 긴장을 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그의 거주지의 평화를 박탈해 버린다면 인간의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거주지의 질서와 집의 편안함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① 인간은 삶의 체험과는 분리된 점유물인 집에서 거주한다.
- ②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인간은 사적인 거주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 ④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⑤ 인간은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도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상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향유로서,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를 사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이 갖는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모순된다. 다만, 결혼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서로가 상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인격성을 상실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은 쾌락적 가치를 지니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서로가 동의한 성적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성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성적 향유는 오직 부부라는 조건하에서만 정당화가 가능하다
- ③ 성은 성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구해도 된다
- ④ 성적 행위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실천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부과하더라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있어야 한다.  
 을: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한 국가가 세력 균형의 유지와 재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군비 경쟁이다.  
 병: 군비 경쟁이 초래하는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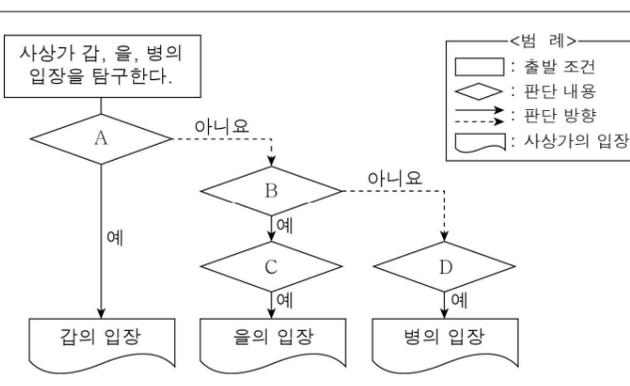
- ① 갑: 다수의 국제 연맹을 창설해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된다.
- ② 을: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국제 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 ③ 병: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한다.
- ④ 갑, 을: 국가들 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⑤ 갑, 병: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야 한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지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미적·윤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을: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이다. 생명 중심 관점에서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병: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 차별주의를 벗어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나)



< 보 기 >

㉠. A: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 B: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 C: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  
 ㉣. D: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p>갑: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지만,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를 보존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p> <p>을: 인간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p> <p>병: 인간의 행복 실현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자연적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최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p> |
| (나) |   |

- ① A: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을 간과한다.
- ② B: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③ B, D: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간과한다.
- ④ C, E: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함을 간과한다.
- ⑤ D, F: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p>갑: 유전 공학의 발전으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인류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p> <p>을: 동의합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치료 목적의 유전적 개입을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의 유전적 자질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p> <p>갑: 아닙니다. 유전자 강화를 통해 체력이나 지적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부모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p> <p>을: 그렇지 않습니다. 후세대는 유전자 강화를 통해 향상된 체력이나 지적 능력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 강화는 자녀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p> |
|---|

- ①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유전 질환을 치료하려면 유전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 ③ 유전적 강화는 후세대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가?
- ④ 유전자 강화로 후세대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가?
- ⑤ 유전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강화는 허용될 수 있는가?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p>갑: 철인(哲人)들이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시켜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해야 한다.</p> <p>을: 명군(明君)이 백성의 생업을 관장함에 있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백성을 선한 데로 이끌 수 있다. 백성은 향산이 없으면 향심도 없어진다.</p> |
|---|

|  |
|--|
| < 보 기 >  |
| <p>ㄱ. 갑: 통치자는 좋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려야 한다.</p> <p>ㄴ. 을: 통치자는 백성의 삶의 기반인 향산을 보장해야 한다.</p> <p>ㄷ. 을: 통치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다스리는 일도 해야 한다.</p> <p>ㄹ. 갑, 을: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이행해야 한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
|---|
| <p>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모략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다함이 없는 도(道)를 체득하여 없음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지극한 사람[至人]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아서 일부러 보내지도 않고 일부러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그저 응할 뿐 간직하지 않는다.</p> |
|---|

- 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 ② 천지 만물 어디에나 있는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④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⑤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10. 갑, 을, 병 중에서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p>갑: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해 온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p> <p>을: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되어야 한다.</p> <p>병: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고명이 첨가됨으로써 국수 맛이 풍성해지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p> |
|--|

|   |
|---|
| < 보 기 >   |
| <p>ㄱ.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하는가?</p> <p>ㄴ.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하는가?</p> <p>ㄷ. 사회 통합은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p> <p>ㄹ. 한 사회에는 중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하는가?</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오늘날에는 생사를 좌우하는 주요 신체 기능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심장 박동, 순환, 신진대사 등을 유지시키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죽음의 자연적 진행 과정을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거나 단축시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성도 포함된다. 예컨대 불치병 환자에게 심폐 소생 장치를 연결하여 연명 치료를 지속하는 것보다 그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심폐 소생 장치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보 기 > —

ㄱ. 회생 불가능한 환자일지라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가 필요하다.  
 ㄷ.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ㄹ. 회생 불가능한 환자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면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 남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남들을 위해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을: 사회 계약의 산물인 법은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 행복'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낮고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법은 스스로 살인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살인범은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갑: 살인범은 법률적 인격체가 아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된다.  
 ③ 을: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을: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⑤ 갑, 을: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 평가할 수 있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① 미는 도덕과 달리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  
 ② 미적 판단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③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에는 유사성이 없다.  
 ④ 미적 가치는 예술의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도출된다.  
 ⑤ 미적 즐거움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사소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한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하여 담론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며 실천적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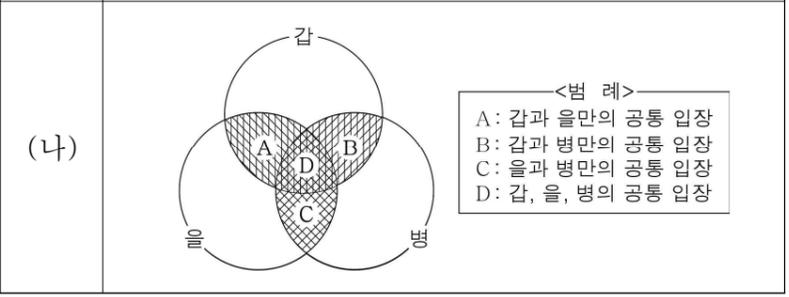
— < 보 기 > —

ㄱ. 규범이 정당화되려면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해야 한다.  
 ㄴ.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ㄷ. 공정한 담론을 통해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ㄹ. 담론의 공동 결의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표현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을: 정치 공동체에서 부(富)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 보 기 > —

ㄱ. A: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B: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ㄷ. C: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  
 ㄹ. D: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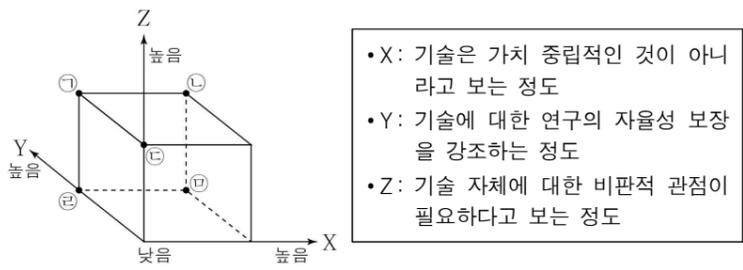
16.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보고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병: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여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 ② 을: 시민 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③ 병: 시민 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④ 갑, 병: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양심적인 행위이다.
- ⑤ 을, 병: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17.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기술은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을: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 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의 대상을 친소 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조는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을: 원조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해야 한다.
- ② 갑: 원조는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
- ③ 을: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된다.
- ④ 을: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도 허용된다.
- ⑤ 갑, 을: 원조의 주체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 사례 >

A는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돈을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거짓말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② 갑: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 항상 정직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을: 거짓말로 인한 결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④ 을: 정직함은 유용성과 무관하게 도덕적인 것임을 명심하세요.
- ⑤ 갑, 을: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20.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터넷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정보 통신 기기를 보급하고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가 부족하다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보기 >

- ㄱ. 스마트 기기의 보급만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가?
- ㄴ.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부의 평준화가 실현되는가?
- ㄷ.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가?
- ㄹ.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